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우명희 카타리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김정기 토마스아퀴나스, 윤여진 엘리사벳	교무금 : \$1,000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이주현 안드레아	봉헌금 : \$327
다음 주 미사 복사: 최고은 소피아	캠프 관련 : \$1,655
금주 미사 해설: 최고은 소피아	감사헌금 :
다음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 김윤광 요한/추계자 마리아 \$300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 류성진 스테파노/김민정 켈마 \$500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 오삼숙 아네스 \$200
친교실 정리: 1 구역	합계 : \$ 3,982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7 월 27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7 월 21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흥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7 월 20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농민 주일을 맞아, 고려 말의 시인 이규보가 쓴 “농부를 대신하여”(代農夫)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흙투성이 험한 풀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만/ 왕손 공자들아 나를 멀리 마라/ 그대들의 부귀영화 농부들에게서 나오나니 ……”. 오늘은 특별히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날입니다. 위에 소개한 시처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들은 대부분 농부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민들은 땀별 아래에서 굶은 땅방울을 흘리며 힘들게 일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을 틔워 열매를 맺고 여물려면 대지와 태양, 바람과 비, 그리고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쌀 한 톨 한 톨에도 하나님의 조화로운 손길과 농부의 땅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다 보니 농민들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고단함과 가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그 안에 담긴 농부들의 수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은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라고 합니다. 이 땅의 농민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를 읊어 드리고 싶습니다. “농부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삼바오로
(608) 628-7977

연중 제 15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7 월 14 일

<제 1 독서>아모스 예언서 7,12-15

<제 2 독서>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1,3-14 <또는 1,3-10>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재비도 동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1 봉헌: 219 성체: 180 파견: 472



비우고 파견되어 평화심기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우리가 신앙인이 된 목적은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것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이지만,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파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성사인 성체성사를 파견이라는 뜻을 가진 ‘미사(Missa)’라고 부릅니다. 파견이란 선교사가 되어 머나먼 땅으로 떠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매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파견된 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욕심 많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평화 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비우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화를 심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만 생길 것입니다. 비우는 작업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으름 제자로서 자만심이 있었고, 칼을 휘두를 만큼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과 용서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고, 빠저린 통회를 거치고서야 겸손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잘 파견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그것만은 참을 수 없다는 자존심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비우고 나서 그 자리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또 하나의 비우는 작업은 물질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가난하면 대학도 가기 힘들고, 없는 사람은 존경받을 수도 없는 이 한국 사회에서 돈 주머니를 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재물은 마음의 자유를 빼앗으며, 재물욕심은 평화를 깨는 제 1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신앙인에게서는 물질적인 평화보다 영적인 평화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나그네이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시작으로 하느님의 평화를 선포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재물과 학력과 외모를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누구든 만나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말을 모르겠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농민의 삶은 과정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과정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농사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잘 벌어서 훗날 멋있게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은 참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우리 인생의 내용이며 목적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도 지위와 재력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 공지사항

1. 정착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목 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2. 다음 주 미사 후 (21 일)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김용수 마태오 신부 | 인천교구

제가 부제시절 성지순례를 할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순례를 마치고 이탈리아 순례를 위해 이탈리아에 입국하여 수화물로 부친 개인 가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가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항공사의 실수로 동기 22 명의 가방 중 7 명의 가방만 나오고 15 명의 가방은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일정에 의해 일단 가방 없이 다니는 것으로 결정하고, 가방은 5 일 정도 뒤에 갈 숙소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가방 없이 순례 할 생각에 답답함과 항공사에 대한 불만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날 밤, 늦게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출발시각 5 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5 분이라는 시간 동안 씻고, 옷 입고, 여권 챙기고, 식당에 들러 빵도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가방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것도 없었고, 놓고 가는 건 없는지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의 부재에 대한 불평불만이 훌가분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위의 상황은 본의 아니게 오늘 복음 말씀처럼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없고, 신발은 하나, 입고 있는 옷 한 벌이 전부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순례를 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순례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방을 챙겼지만 분명한 것은 사라진 가방에 들어 있던 저의 물품이 순례 하는데 모두 꼭 필요한 물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데 편의를 제공해주는, 즉 제 몸의 편안함을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순례를 시작하며 오늘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놓고 가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순례의 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서 어느 성인, 발자취를 만나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며, 껴입지 말라고 하신 것도 제자들의 여행 목적이 회개와 복음의 선포로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시키고 복음을 선포할 것인지 고민해야지, 어떤 길로 어떻게 가며 무엇을 먹고 입고 챙길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및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하고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무엇을 언제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활동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느님 앞에서의 자연스러움이며, 신앙의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